

따끈따끈한 새 책



케이블 타고 안방으로

직접 발로 뛰어 신간홍보를 대행했던 여산통신(대표 조철현)이 영상매체를 통한 신간 홍보프로그램(‘금주의 신간’ 영상 보도자료, 가칭 On Book)을 문화의 달을 맞아 10월 1일부터 가동한다. 회사 창립 1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되는 On Book은 지난 1월, 여산통신이 출판계의 신간 홍보 선진화를 위해 출판사와 독자의 니즈needs를 분석하고 기획해 준비해 온 프로젝트. 4년 전부터 이 프로젝트를 구상해 왔다는 조 대표는 “모든 영상매체와 인터넷 동영상에서도 책 소식을 전할 만한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된다”며 책에 대한 영상홍보 시대를 적극 열겠다고 밝혔다.

여산통신이 계획하고 있는 On Book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여산통신은 출판사 의뢰를 받아 ‘영상보도자료’를 제작, 계약에 따라 케이블TV 등의 영상매체에 무료 제공한다. 케이블TV 등은 영상보도자료를 방송국 편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 활용한다. 영상보도자료의 부분 부분을 임의 편집하거나 발췌 방영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여산 측은 방송용 영상보도자료에 ‘무단 전재, 무단 활용을 환영합니다’란 문구를 담아 영상홍보 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출판사가 부담하는 영상보도자료 제작비는 1회 10만 원으로 책정할 예정. 방송용 테이프가 개당 2만 원 선임을 감안할 때, 여산통신은 다섯 곳 방송매체에 제공할 테이프 값만 받고 제작과 배포를 대행하는 셈이다. 여산통신은 일단 창립 10주년이 되는 2004년 5월까지 출판계 불황을 감안하고 영상보도자료 문화의 정착을 위해 On Book 보도자료 의뢰 출판사들에 한해 신문 잡지 방송사에 보내는 신간배포 대행료를 50퍼센트 할인해주는 가격정책을 펼 예정이다. 이럴 경우 종당 100권을 홍보용으로 배포 의뢰하는 출판사는 권당 약2,000원의 배포대행료 중 할인되는 10만 원으로 영상보도자료를 제작, 홍보할 수 있다는 게 여산의 설명이다. 영상보도자료는 덩 같은 효과를 낸다는 얘기다.

여산은 발품 팔아 수익을 내는 틈새시장을 개발, 우체국의 원망(?)까지 사는 등 출판계의 주목을 받아온 홍보대행 전문업체. 여산통신의 이번 신상품 개발로 출판계는 홍보다변화 창구를 하나 더 장만한 셈이 됐다. 여산은 영상보도자료를 기업·관공서·교육기관 등에도 제공하여 독서문화 발전에도 기여하겠다는 의욕을 보였다. ■